

## 반트슈나이더의 헤겔 변증법 수정에 대한 비판

사진가 이시우

반트슈나이더는 헤겔의 변증법을 화용론을 이용해 새롭게 재구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도에서 가장 중요한 논증은 '존재는 비존재가 아니다' '존재는 비존재이다'가 동시에 성립하는 이율배반구조이다.

이렇게 되면 '존재는 비존재이며, 비존재가 아니다'가 된다.

반트슈나이더는 의미론의 영역을 화용론의 영역으로 우회 이동시키는 전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 분야에 낯선 사람들에게겐 많은 배경설명이 필요하지만 이는 정식논문이 아니므로 친절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반트슈나이더는 6단계도식을 통해 검증을 진행한다.

(「존재」를 「S」로 「비존재」를 「N」으로 하며, 「의미론적으로 대등하다」를 「=」로 약어 표기한다)

- (1) 「S」=「N이 아니다」
- (2) 「S」는 「N」에 대응하는 것이다.
- (3) 「S」는 「N」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 (4) 「N」=「「N」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 (5) 「S」=「N」
- (6) (「S」=「N이 아니다」)  $\oplus$  (「S」=「N이다」)

(6)에서 이같은 시도는 훌륭하게 성공한 것으로 입증된다.

이 도식에서 가장 중요한 도식은 (2)이다. (1) 「S」=「N이 아니다」는 의미영역이다. 의미상 존재는 비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2)에서 화용론적 대응개념이 적용하면서 (1)의 '아니다'는 '이다'로 바뀐다. 이후에 전개되는 '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의 끝없는 교체는 이율배반구조를 만들어내는 핵심과정이다. 만약 (2)단계 도식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후 과정 전체는 불성립한다.

반트슈나이더는 화용론을 끌어와 '대응'시키고 있지만 여기서 사실상 '대응'은 중요한 역할이 없다. 오직 (1)의 '아니다'를 (2)의 '이다'로 바꾸기 위한 매개역할로서만 의미가 있다.

의미론적 구별이 대등-대응규정을 거쳐 존재론적으로 동일속성을 구성한다는 것은 검은 공과 흰 공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면서 주머니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공통속성을 갖게 되어 두 공은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 부분에서 그의 설명은 모호하고 납득하기 어려웠다.<sup>1)</sup> 2012년 논문에서 그는 이에 대해 상

1) 2002년 번역 출간된 그의 책에서 인용한다.

(1) 「S」=「N이 아니다」

그 결과 먼저 「존재」와 「비존재」의 (상호보충적) 대립이 주어진다. 대립관계는 상호보충원리에 따라

세한 설명을 제출했다.

‘이제 주어진 ‘존재’와 ‘비존재’라는 범주의 이중성으로 인해 명시적 규정의 새로운 집합이 진화했으며, 이는 이제 두 범주 사이의 관계에 관한 질문을 제기한다. 처음에는 각각이 상관된 다른 것에 대한 부정이라고 명시되어야 한다. 이는 ‘존재’라는 범주가 ‘비존재’라는 범주가 아니라는 뜻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존재’라는 범주 자체가 ‘비존재’의 심급임이 밝혀진다. 사실 그것은 ‘존재’를 의미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비존재’라는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비존재’에 대응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존재는 비존재의 속성을 갖고 있고 그런 만큼 ‘비존재’이다. 그러나 ‘비존재적’임은 다시 ‘존재적’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이것은 다시 비존재적이 아니므로 이로써 다시 비존재의 속성이 주어지는 식이다.’<sup>2)</sup>

반트슈나이더는 여기서 ‘속성’을 헤겔의 ‘계기’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화용론적 ‘대응’은 『대논리학』의 ‘이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대응이라는 단계를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존재는 존재와 비존재의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화용론적 대응이 굳이 필요한 이유를 여기서는 알 수 없다. 화용론적 대응전략은 실패했다.

다음으로 이율배반구조의 시원문제이다. 이율배반의 발생을 위한 근거로서 케셀링이 언급한 부정적 자기관계의 존립을 반트슈나이더 역시 계승한다.<sup>3)</sup>

‘B는 B가 아니다’로 시작하는 문장을 예로 들어보자.

「B」  
=「「B」가 아니다」  
=「(「B」가 아니다)가 아니다」  
=「(「「B」가 아니다)가 아니다)가 아니다」….

---

서 구성적으로 「존재」의 의미에 속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실은 확실히 타당하게 여겨진다. 「S」는 「N」과 대등한 것이 아니다. 이 ‘아니다’는 개념「S」 그 자체가 비존재의 경우를 대변한다는 것, 즉 개념「N」의 의미에 대응하는 것과 동일한 속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념「S」 그 자체는 「N」의 심급임을 보여준다. 그것을 필자는 여기서 다시(2.1절 참조) 다음과 같은 단축형으로 쓸 것이다.

(2) 「S」는 「N」에 대응하는 것이다.

하나의 실재가 개념「N」에 ‘대응하는 것이다.’ 즉 개념「N」의 심급이라는 것은 이미 언급된(2.2절)바와 같이 플라톤 식으로 실재가 ‘「N」이라는 이념에 관여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아니면 우리는 실재가 「N」이라는 속성을 가진다고(예를 들면 「붉은」에 대응하는 것’은 속성 ‘붉은’을 대표하는 것처럼(2.2절 참조)) 단순히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연히 (2)의 진술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그 진술에서 드러난 ‘이다’는 재차 존재를 표현하며, 즉 「S」는 바로 개념「S」 그 자체의 의미에 대응하는 속성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S」는 「S」에 대응하는 것 혹은 「S」가 (1)에 따라 적어도 「N」과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3) 「S」는 「N」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이 ‘아니다’를 근거로 해서 「S」는 다시 「N」에 대응하는 것이다 등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

(디이터 반트슈나이더, 이재성 역, 『변증법이론의 근본구조』, (서울: 다산글방, 2002), pp.72-73)

2) Dieter Wandschneider, “The Problem of ‘Ultimate Grounding’ in the Perspective of Hegel’s Logic,”(2012), p.6

3) 디이터 반트슈나이더, 이재성 역, 『변증법이론의 근본구조』, (서울: 다산글방, 2002), p.39

부정적 자기관계를 표현하는 「B」의 자리에 「B」가 아니다」가 투입되면 「아니다」 「아니다가 아니다=이다」 「아니다」 「이다」가 끝없이 교체된다. 결과적으로 두 번째 문장부터 「B」는 「이다」와 「아니다」를 동시에 갖는 문장이 된다. 이러한 이율배반구조로부터 이율배반개념이 훌륭하게 입증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그러나 첫 시작인 「B」=「B」가 아니다」는 의미상 성립할 수 없는 문장이다. 이율배반개념의 핵심출발인 부정적 자기관계는 자체 내에서는 도출될 수 없고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한다.

이는 변증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내재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헤겔의 『대논리학』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순수존재 그 자체로부터 자기 논리를 내재적으로 전개한다. 분석철학자들은 헤겔의 이점을 높이 사면서도 정확한 의미에서 이 원칙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는 칸트가 물질을 전제하고 반발력을 전개한 뒤 이로부터 추론하여 견인력을 불러오는 것을 구성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헤겔이 그것은 구성적이 아니라 분석적일뿐이라고 비판했던 것과 같은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sup>4)</sup> 이율배반개념과 변증법개념이 전제된 뒤에야 변증법적 논증이 가능하다고 보는 반트슈나이더에게는 따라서 논리학의 시원문제가 외적인 반성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sup>5)</sup>

내가 보기에 반트슈나이더의 훌륭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위에 언급한 두 가지 점은 결정적인 흠결이 아닐 수 없다.

---

4) 헤겔, 임석진 역, 『대 논리학 I』, (서울: 지학사, 1991 4판), p.185

5) 디이터 반트슈나이더, 이재성 역, 『변증법이론의 근본구조』, (서울: 다산글방, 2002), p.72